



우즈 '불안한 선두'...허석호 톱10 가능성

타이거 우즈가 23일 영국 리버풀 인근의 로열리버풀링크스코스에서 열린 브리티시오픈 3라운드 1번홀에서 퍼팅을 한 후 아쉬운듯 주저앉는 동작을 하고 있다.

/AP=연합뉴스

13언더...2위 엘스·가르시아·디마르코 1타차 추격

허석호 퍼팅 감각 회복 6언더 16위...최경주 컷오프



브리티시오픈 골프 3R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미국)가 제135회 브리티시 오픈골프 대회 3일째 불안한 선두를 지켰다. 전날 부진했던 허석호(33)는 3타를 풀이 며 '톱10' 입상 가능성을 되살려냈다. 대회 2연패와 대회 3차례 우승, 그리고 메이저대회 11번째 정상에 도전하는 우즈는 23일(한국시간) 영국 리버풀 인근의 로열리버풀링크스코스(파72·7천258야드)에서 열린 대회 3라운드에서 1언더와 71타를 쳐 합계 13언더와 203타로 단독 선두를 고수했다. 지금까지 메이저대회에서 최종 라운드를 앞두고 선두로 나섰을 때 한번도 역전패를 허용하지 않는 강한 뒷심을 발휘해온 우즈는 이로써 지난해 브리티시오픈 우승 이후 3차례 메이저대회 무승 행진에 마침표를 찍을 체미를 갖췄다. 특히 올해 부진상을 당하면서 US오픈에서 첫 메이저대회 컷오프의 수모까지 겪었던 우즈로서는 '황제의 위용을 다시 확인할 기회'를 맞은 셈이다. 그러나 1, 2라운드에서 코스레코드를 포함해 모두 60대 타수를 때려냈던 우즈는 단 1타밖에 풀이지 못해 '메이저대회 3라운드 성적 부진'이라는 징크스에 발목이 잡혔다. 우즈는 작년에도 이 대회 3라운드에서 1타밖에 풀이지 못하면서 2위 그룹에 1타차

로 쫓겼다. 버디 5개를 뽑아냈지만 보기를 4개나 결들인 우즈는 아니 엘스(남아공), 세르히오 가르시아(스페인), 크리스 디마르코(미국) 등 경쟁한 강호들에게 1타차로 쫓겨 우승을 장담할 수 없는 처지. 또 짐 퓨릭(미국)과 알렉 카브레라(아르헨티나)가 2타 뒤진 공동5위에 포진해 우승 길목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2라운드에서 1오버와 73타로 부진한 탓에 중위권으로 밀렸던 허석호는 퍼팅 감각이 살아나면서 3언더와 69타로 선전, 공동16위(6언더와 210타)로 순위가 경증 뛰었다. 5번홀(파5)에서 4번 아이언으로 친 두번 제샷을 홀 3m에 붙여 이글을 뽑아낸 허석호는 10번홀(파5)에서는 무려 15m 짜리 먼거리 버디 퍼팅을 성공시켜 갤러리의 우레 같은 박수갈채를 받기도 했다. 이날 드라이버로 티샷을 자주 하는 등 공격적인 플레이를 펼친 허석호는 그린 적중률은 55.5%에 그쳤지만 28개에 불과한 '잔물 퍼팅'이 돋보였다. 허석호는 2004년 최경주(36·나이키골프)가 세웠던 한국 선수의 브리티시오픈 최고 성적(공동16위) 경신과 함께 한국 선수 첫 '톱10' 입상을 바라보게 됐다. 한편 최경주는 2라운드 합계 2오버와 146타로 공동 91위에 그쳐 5년만에 이 대회에서 컷오프됐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허석호가 23일 영국 리버풀 인근의 로열리버풀링크스코스에서 열린 브리티시오픈 3라운드 8번홀 그린 근처에서 벙커샷을 하고 있다.

/AP=연합뉴스

13세 재미교포 신지은 우승 美 여자주니어아마골프



재미교포 신지은(13·미국명 제니 신·사진)이 2006 미국여자주니어아마추어선수권대회에서 정상에 올랐다. 신지은은 23일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의 카멜골프장(파72·6천396야드)에서 열린 36홀 매치플레이 결승에서 연장 접전 끝에 비키 허스트(미국)를 꺾고 우승을 일궈 냈다. 9살 때 미국으로 건너와 캘리포니아주 토런스에서 살고 있는 신지은은 13세9개월의 나이에 우승함으로써 이 대회에서 두번째로 어린 나이에 우승한 선수가 됐다. 역대 최연소 우승 기록은 1999년 송아리(20·하이마트)가 세웠던 13세3개월이다. 36홀 매치플레이로 진행된 결승에서 신지은은 후반 한 때 3홀차로 뒤지면서 우승을 내주는 듯 했다. 하지만 벌어진 홀차를 좁혀나간 신지은은 1홀차로 뒤지던 36번째홀(파5)에서 4타만에 그린 위에 올라온 뒤 허스트가 3퍼트의 실수를 범하는 사이 90cm 퍼트를 성공시켜 승부를 연장으로 끌고 갔다. 기세가 오른 신지은이 연장 첫번째 홀(파4)에서 2타만에 볼을 그린 위에 올려 놓은 반면 허스트는 첫 번째 샷을 워터 헤저드에 빠뜨린 뒤 다음 샷도 그린 옆 벙커로 날려 보내 백기를 들었다. 한편 같은 날 캘리포니아주 맨초 산타페에서 끝난 남자부 경기에서는 재미 교포 리처드 리(15)가 결승에 올랐지만 필립 프랜시스에게 3홀차로 패해 한국 남매가 동시에 주니어대회를 제패하는 데는 실패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프로야구 전반기 결산

KIA 타이거즈가 5위를 기록한 가운데 2006프로야구가 지난 20일 전반기 일정을 모두 마감했다. KIA는 당초 4강권이라는 예상과 달리 주전들의 부상과 타선의 부진이 겹쳐 기대에 못미치는 5위로 전반기를 마감해 아쉬움을 남겼다. 올 시즌 전반기는 삼성의 독주속에 현대와 두산, 한화, KIA의 밀고 밀리는 치열한 4강 다툼이 전개됐다. '투고 타저'의 현상이 두드러졌고 신인들의 활약도 돋보였다. 또 각종 신기록들도 쏟아져 25년째 접어든 프로야구사를 풍성하게 했다.

'투고타저'...루키 맹활약 KIA '줄부상'...5위 그쳐

▲순위싸움 치열 초반은 SK의 질주로 시작했다. 그러나 2~4위권을 맴돌던 삼성이 곧바로 1위 자리를 탈환했고, 8개 구단 가운데 유일하게 6할 승률(0.657)을 기록하며 46승3무24패로 전반기를 마감했다. 2위 경쟁은 시즌 초 약체로 평가받던 현대, 두산과 함께 류현진 등 특급 마운드를 갖춘 한화의 치열한 '3파전'이었다. 23일 현재 선두 삼성과 7.5게임차인 현대는 3위 한화와 1.5, 4위 두산과는 2게임차로 위태로운 2위 자리를 고수하고 있다.

삼성 선두 속 2위다툼 치열

여기에 주전들의 줄부상 등 각종 악재를 겪어온 KIA도 4위 두산과 3게임차 5위를 유지하며 호시탐탐 선두권 진입을 노리고 있는 형국이다. KIA는 특히 최근 부상 투혼 중이던 김진우 등 주전들이 대부분 1군으로 복귀, 후반기 돌풍을 자신하고 있다. ▲세대 교체 바람 올 시즌 전반기는 젊은피들의 바람이 그 어느 해보다도 거세게 불었다. 그 중심에는 단연 류현진(한화)과 이영규(KIA)가 자리했다. 류현진은 현재 다승(12승), 탈삼진(127개), 방어율(2.17) 등 투수 부문 3개 타이틀에서 모두 1위에 올라있다. 1991년 선동열(당시 해태) 이후 무려 15년만에 투수 3관왕의 탄생도 점쳐지고 있다. KIA 이영규도 세대교체의 선두주자다. 고졸 2년차인 이영규는 올 시즌 '고참' 이종범을 밀어내고 KIA의 '리딩히터'로 자리잡았다.

2006 전반기 투수 5걸

Table with 3 columns: 순위, 선수명, 기록. Lists top 5 pitchers: 류현진(한화) 2.17, 이태건(두산) 2.37, 장원준(롯데) 2.83, 하리갈라(삼성) 2.95, 맨틀(두산) 2.96.

다 승

Table with 3 columns: 순위, 선수명, 기록. Lists top 4 pitchers: 류현진(한화) 12, 랜들(두산) 10, 장원준(롯데) 10, 권오준(삼성) 9, 하리갈라(삼성) 9.

삼 진

Table with 3 columns: 순위, 선수명, 기록. Lists top 4 pitchers: 류현진(한화) 127, 박영환(두산) 100, 정이승(아리아) 96, 장원준(롯데) 83, 정일삼(현대) 83.

지난달 중순까지 타격부문에선 선두권을 유지했던 이영규는 최다안타 공동 2위(85개), 득점(41점)부문은 양준혁과 함께 공동 4위, 타율은 5위(0.313)를 기록 중이다.

3할대 타자 겨우 8명

▲투고타저 현상 뚜렷 마운드의 벽은 높고 두터웠다. 류현진과 문동환(이상 한화), 랜들(두산)이 일찌감치 10승을 넘겼다. 여기에 권오준과 하리갈라(이상 삼성)도 9승으로 뒤를 잇고 있다. 특히 방어를 부문은 선두 류현진을 비롯해 무려 6명이 2점대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타자들의 활약은 상대적으로 빈약했다.

3할대 타자가 8명 뿐이다. 구단별로 단 1명씩에 불과한 수치다.

홀런 기근현상도 심각하다. 전반기 291경기 가운데 홀런은 모두 388개로 경기당 1.33개.

지난해 같은 기간(528개)에 비해 무려 140개나 줄었다.

▲풍상신 기록 양준혁(삼성)은 올해 통산 최다 볼넷(949개), 최다 타점(1천146점), 최다 루타(3천174루타) 등 25년 한국 프로야구사를 새롭게 작성했다.

'대도' 전준호(현대)도 지난 9일 광주 KIA전에서 모두 2개를 추가, 한국프로야구 최초로 16년 연속 두 자릿수 도루라는 신기록을 세웠다.

한화의 구대성은 8시즌 연속 두 자릿수 세이브와 6년 연속 20세이브를 최초로 달성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2006 전반기 타자 5걸

Table with 3 columns: 순위, 선수명, 기록. Lists top 5 hitters: 이태건(현대) 0.336, 양준혁(삼성) 0.318, 데이비스(한화) 0.316, 이대호(롯데) 0.316, 이영규(KIA) 0.313.

출 련

Table with 3 columns: 순위, 선수명, 기록. Lists top 4 hitters: 이대호(롯데) 16, 박재홍(SK) 13, 호세(롯데) 12, 안경원(두산) 13, 마이로우(롯데) 12.

안 타

Table with 3 columns: 순위, 선수명, 기록. Lists top 5 hitters: 이병규(LG) 89, 이영규(KIA) 85, 이태건(현대) 85, 박영환(삼성) 85, 이대호(롯데) 77.

문수영 생애 첫 우승

KB국민은행 스타투어 골프 2차대회

문수영(22·사진)이 생애 첫 우승을 차지했다. 문수영은 23일 부산시 기장군에 위치한 아시아드 컨트리클럽(파72·6,210야드)에서 열린 2006 KB 국민은행 스타투어 2차대회(총상금 2억원)에서 최종합계 10언더와 206타로 생애 첫 우승의 기쁨을 차지했다. 2라운드 단독선두였던 최나연(19·SK텔레콤)은 최종라운드에서 2타를 잃어 8언더와 208타, 단독 2위를 기록했고, 1라운드에서 깜짝 선두로 나섰던 서희경(20·하이트)은 이븐과 72타를 치며 최종합계 7언더와



209타로 최종일에만 보기가 없던 3타를 줄인 홍란(20·이수건설)과 함께 공동 3위에 이름을 올렸다. 한편 이번 대회에서 공동9위를 한 신지에는 상금(3,856,000원) 전액을 수재의연금으로 기탁했다. 2006 KLPGA 하반기 5개 대회가 모두 끝난 현재 신지에는 ADT CAPS 상금순위, 대상 포인트, 신인상 포인트 등 3개 부문의 1위를 계속 해서 달리고 있다. /최재호기자 lion@



함평다이내스티 비회원 그린피 3만원 할인 큰 호응...내달 7, 14일 휴장

주중할인제 지속 실시 검토

○4계절 양진디 골프장 함평다이내스티CC가 지난 10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주중 흑서기 그린피 할인' 제도가 내장객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함평다이내스티 CC는 흑서기를 맞아 지난 10일부터 오는 8월 30일까지 주중 비회원 내장객들에게 그린피를 3만원 할인 해주고 있다. 따라서 내장객들은 기존 그린피 13만원(카트비 포함)에서 3만원 할

인된 10만원이면 라운딩을 즐길 수 있다. 오영내 함평다이내스티CC 대표는 "주중 할인행사 실시 후 밀려드는 내장객을 다 소화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8월 30일 이후에도 주중할인제도 실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파인힐스 보수 4일간 쉬어

○전남도에 대부분 골프장들이 여름철 휴장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한다. 함평다이내스티CC는 시설보수와 페어

웨이 잔디보호를 위해 오는 8월 7일(월요일), 14일(월요일)이틀간 휴장 할 계획이고, 광주CC, 클럽900, 골드레이크, 남광주CC, 아크로CC 등은 정상영업을 한다. 파인힐스 CC는 오는 31~8월 3일까지 코스관리와 시설물 보수등을 위해 4일간 휴장한다.

女골프 레이크힐스대회 창설

○골프장 4곳을 운영하고 있는 레이크힐스(회장 윤진섭)가 한국여자프로골프

레이크힐스클래식대회를 창설한다. 레이크힐스는 8월25일부터 3일간 제주레이크힐스골프장에서 제1회 대회를 열고 내년에는 함안레이크힐스골프장에서 대회를 개최하는 등 전국 4개 골프장에서 해마다 대회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광양골프대회가 취소되면서 줄어들었던 올해 한국여자프로골프대회는 15개로 제자리를 찾았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